

# 북한개발소식

2025 FEB

02

통권 232호

이달의 주제

2025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5)

북한뉴스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  
나는 그와 잘 지내”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2025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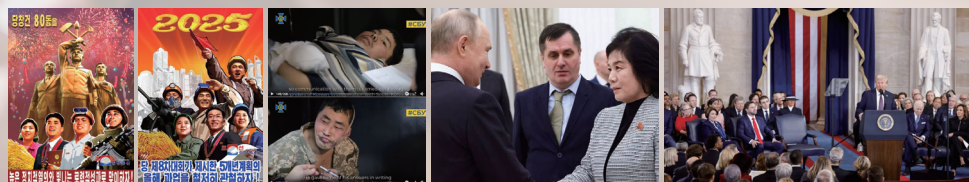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5 FEB

이달의 주제 :

### 2025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2025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10** 한기범\_ 2025년 북한정세 전망
- 칼럼\_2 **16** 양운철\_ 2025년 북한경제 전망
- 칼럼\_3 **23** 최경희\_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조직구성을 통한 2025년 대내외정책 방향 분석
- 탈북민 수기 **27**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5)
- 서평 **32** 북한 도시 이해
- 북한뉴스 **34**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나는 그와 잘 지내”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2025년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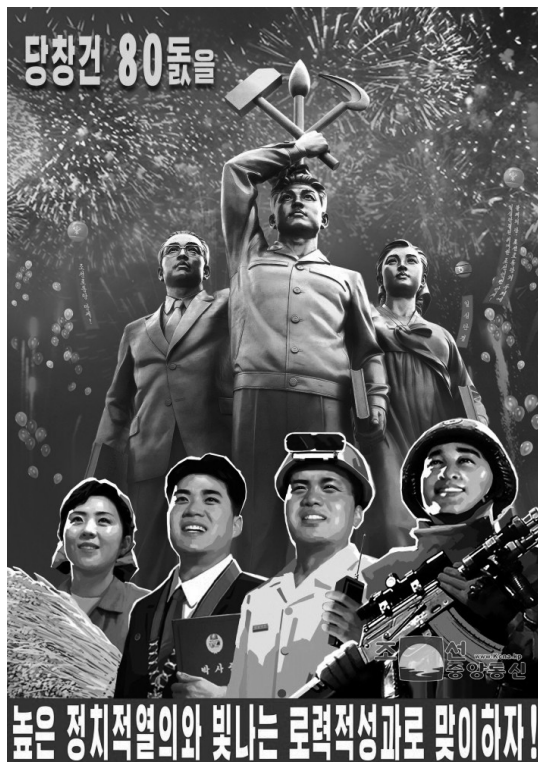


2025년은 북한에게 각별하다. 2025년은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이며,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해일 뿐 아니라 제 9차 당 대회의 개최도 예정되어있다. 북한 당국에게는 확실한 성과를 꼭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2025년을 맞아 변곡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수가 증가하고 있고,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종식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밀착하고 러우 전쟁에 전투병까지 파병하면서 국제 정세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과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경험이 있고 당선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의 의지를 비춘 트럼프 2기의 출범은 북한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우 전쟁의 향방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 대화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 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2025년 새해 행보를 전망해 보고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고민과 기도제목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북한의 신년 메시지-대내적 치적 쌓기의 필요성과 한계

북한은 매년 그 해의 방향성을 신년사의 형태로 발표해왔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당 전원회의 결과발표로 신년사를 대신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은 24년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성과를 독려하는 북한의 신년 선전화〉

12월 23~27일 일정으로 제 8기 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평소보다 이른 24년 12월 29일 결과발표를 보도했다.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전원회의 결과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 메시지보다는 내부를 향한 메시지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개선, 지방발전정책, 교육토대 강화 등이 2025년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기간산업 지속 발전, 평양시 주택 건설사업 완료 및 ‘지방발전 20×10 정책’ 범위 확대, 재해방치 대책 마련 등을 강조되었다.

이번 결과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창건 80주년과 9차 당 대회를 맞아 경제와 민생분야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번 결과발표에서는 2025년이라는 단어가 총 17번이나 등장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sup>1</sup> 올해를 기념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내세울만한 가시적 치적을 쌓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과와 민생 개선을 선전하며 2025년을 기념할만한 해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경제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는 북한 당국의 자원 배분과 투자가 민생보다는 핵과 군수산업 및 대규모 건설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핵이나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속에서 호황을 맞은 군수산업은 현재 북한의 자원이 가장 먼저 투자되는 분야이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북한은 올해의 달성해야 할 성과로 평양의 주택 건설 사업을 언급하는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핵무기나 군수공장, 평양의 주택 건설은 일반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민생 개선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자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사실 북한이 이러한 편

중 투자 경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보니 이를 북한 경제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24년 북한이 핵무기 증산과 주요 군수산업 대상들, 전시성 건설 사업에 대한 편중 투자 등으로 만성적 경제난이 지속되며 북한의 현재 추진 중인 경제관리 개선정책도 실패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과거 북한이 민생 경제의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어낸 사례를 찾아보자면 장마당의 활성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시장은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위축되어왔다. 그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시장을 회복시키고 민생 경제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적극적 시장개입을 통해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발표에서도 북한은 계획화, 가격사업 개선 등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미연 KDB연구위원은 2022년 양곡판매소 도입을 통해 장마당에서의 곡물 거래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 당국의 경제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상승 등과 관련한 개입을 예상했다.<sup>3</sup> 그렇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민생 경제 개선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미연 KDB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의 방향성에 대해 북한이 대내 경제 전략을 통해 ‘그럭저럭 버티기’상황은 유지하겠지만, 경제난 해결은 불가능하고 중앙집중적 통제를 통한 경제관리 개선 시도는 한계를 노출할 것으로 전망했다.<sup>4</sup>

결국 올해 북한이 내세울만한 성과는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지방발전 20×10 정책, 평양시와 지방의 주택건설, 수해 지역 피해복구 건설 등 전시성 건설 사업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될 전망이다.<sup>5</sup> 그렇지만 이러한 전시성 사업만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고생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의 성과를 납득시키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 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배분, 투자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1 임을출 (2024),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2024-19, p. 4.

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2024년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pp. 7, 36-38.

3 김미연 (2025), “2025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조선노동당 제8기 제 11차 전원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분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주최 토론회 ‘2025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전망’ 자료집, p. 19-21.

4 김미연 (2025), 위의 글.

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앞의 책, p. 7-8.



〈24년 4월 16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과 기념우표〉

##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이번 전원회의 결과발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대외적 메시지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고 구체적인 대외정책 관련 내용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번 결과 발표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대외 정책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의미로 해석

한다.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향후 대응의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sup>6</sup>

북한의 신중한 대외 메시지와 관련하여 북한이 과거에 비해 북미대화에 소극적 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근래 북한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과의 대화에 회의적인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발언은 그동안 협상해 볼 만큼 해 봤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없이 침략적이고 적대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도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언급하며 당분간 대미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는 북한의 미국과의 협상 메리트가 상당히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연구소 황일도 교수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보다 극적으로 강화된 핵전력과 약화된 대북제재 체제 등을 고려할 때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가격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sup>7</sup>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포탄 수출과 군대 파병 및 노동자 파견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첨단 군사기술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주는 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보았다.<sup>8</sup>

북미 대화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러우 전쟁의 향방에 주목하게 된다. 러우 전쟁의 종식이 북한에게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이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하게 되면 북·러 관계의 일정한 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그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면 김정은은 북·미 대화 재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sup>9</sup>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우 전쟁이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이 되는 경우에 북한과 러시아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식 이전까지는 기존 북러 조약에 따라 북한을 병참기지로 최대한 활용하고, 종식이 되면 이후 북한을 팽하고 한국과 관계개선을 해도 문제없다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북한 또한 러시아로부터 군사협력, 군사기술, 주요 무기 제공 등을 전쟁 종식 전까지 최대한 얻어내려 할 것이라 전망했다.<sup>10</sup>

러우 전쟁이 북러 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의 북러 관계를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협력이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은 신냉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북러 관계는 과거 구소련과 공산권이 보여주었던 이념적 블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장기화된 러우 전쟁 속에서 군수물자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했던 러시아와, 대북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 중이었던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전략적 협력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사실 러시아와 북한은 이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양국 간 무역이나 교류는 매우 적은 규모였다. 양국 모두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산품 생산을 위한 산업은 발달하지 못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 거래할만한 품목이나 협력할만한 분야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우 전쟁을 통해 군수 물자와 전투인력, 그리고 무기 기술 등을 매개로 양국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지만, 전쟁이 종식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양국 간의 교류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의 예측과 같이 양국 관계가 크게 이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러우 전쟁의 종식 가능성이 심도 깊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을 주요 선거 공

6 이상현 (2025), “2025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대외환경”,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주최 토론회 ‘2025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전망’ 자료집, p. 23-24.

7 황일도 (2024),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2024-12K (November 12, 2024), pp. 1-7.

8 정성장 (2024), “북한의 2024년 정세 평가와 2025년 대외·대남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SEJONG FOCUS (2024년 12월 23일).

9 정성장 (2024), 위의 글, p. 4.

10 이호령 (2025), “2025년 북한 정치·군사·대외 평가와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주최 토론회 ‘2025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전망’ 자료집, p. 6.

약으로 내세워 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러시아의 입장에서조차 예상보다 장기화 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 이 뿐 아니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 각국 등 주변국들의 피로감이 크고 그에 따라 국제적인 전쟁 중단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전쟁이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되고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공급받아왔던 외화와 물자가 감소하게 된다면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2025년 북한과 북한 선교

북한의 내부적인 민생 안정과 성과 창출의 필요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우 전쟁의 향방에 따른 북한의 대외 관계의 변화는 앞으로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선교의 대상이 될 이들과의 접촉점 확보이다. 최근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의 외부 왕래도 대부분 끊긴 상황이다. 과거 친척방문이나 일거리를 찾아 해외를 방문했던 다수의 합법적인 방문자들이 있었고, 몰래 강을 넘는 비법 월경자들도 없지 않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북한은 국경을 철저히 걸어 잠갔고,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북한은 철저한 국경 통제로 밀수 활동이나 비법 월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합법적인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방문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는 해외 북한 선교의 위축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북한이 주민들의 해외 방문이나 교류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와 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식량과 생필품 및 산업 자재 수입이 필수적이다. 대북제재 이전에는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과 의류 임가공 산업 등 북한도 외화 벌이가 가능한 여러 분야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산업 자재와 식량 및 생필품 수입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도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제재 이후 북한은 원활한 외화 벌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반면에 수입해야 할 품목들은 여전하다 보니 그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장마당 중심의 경제가 아닌, 국가의 경제 분야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영역의 외화를 국가로 동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민간의 해외 교역을 막아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모든 민간의 외화 환전을 금지하고 국가 환전소로 일원화였으며, 국영 유통망 복원을 통해 장마당을 통한 민간의 교역이 아닌 국영 상점을 통해 물자들이 공급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외화를 쓸 수 없게 된 주민들이 외화를 환전하여 국영 상점 등을 통해 물자를 구매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민간의 외화를 국가가 흡수하는 효과를 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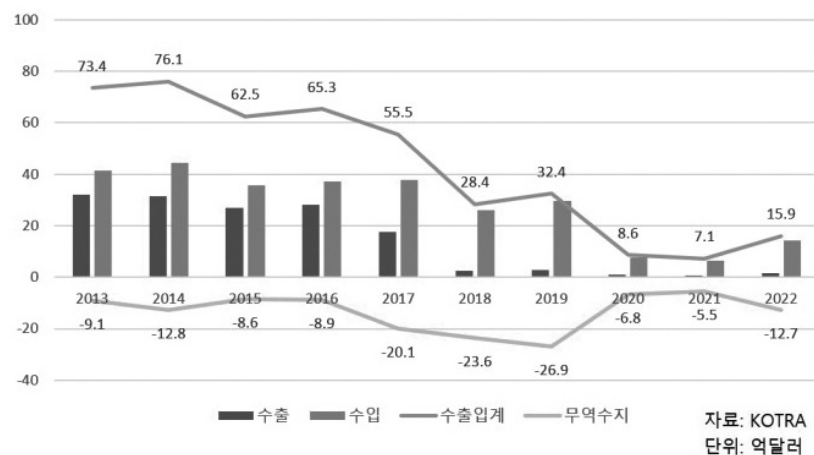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에는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는 물자와 외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부르짖지만,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수입 없이는 원활한 식량 및 물자 공급, 그리고 산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은 2022년 10월부터 사적인 식량 거래를 금지하고 양곡판매소를 통해 일원화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식량은 주민들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식량이 제공, 유통되지 못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최근 식량생산량은 4백만 톤 중반 정도인데 이는 인구 대비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는 6백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분배의 비효율성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북한은 양곡판매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아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으며,<sup>11</sup> 2023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수 배 이상의 규모로 식량을 수입하기도 했다.<sup>12</sup> 그렇지만 2024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 수입량이 상당히 감소했는데,<sup>13</sup> 여기에는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북한 당국의 부담을 덜어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4</sup> 그렇지만 전쟁이 종식이 되고 밀착되어 있던 북러 관계에 이완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현재와 같은 외화와 식량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식량 생산량이 자급자족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은 결국 다

11 통일부 "북한, 작년 10월 신양곡정책으로 식량 분배에 문제", 연합뉴스 (2023.02.17.), <<https://www.yna.co.kr/view/MYH20230217002000038>>

12 북한, 대중국 쌀 수입 2019년 대비 5배 늘어...전문가들 "수요 증가 영향", VOA (2023.7.1.), <<https://www.voakorea.com/a/7162337.html>>

13 북한 중국산 쌀 수입액 급감... 전년 대비 15분의 1 수준, VOA (2024.6.13.), <<https://www.voakorea.com/a/7653507.html>>

14 "북한 식량사정 개선...양곡판매소에 러시아산 밀 반입", SPN서울평양뉴스 (2024.07.11.), <<https://www.sp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72>>



〈2013~2022년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제재가 본격화 된 2017년을 기점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KOTRA)〉

일 수밖에 없다.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힘을 싣는 당국의 모습에서 생필품 수입 규모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당장 공장 건설과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기기와 자재 수입이 필수적이다.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외화와 물자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북한 당국은 지금과 같은 경제 부분에서의 강력한 통제 정책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과거 고난의 행군을 통해 자신들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였다가 그 믿음이 깨어진 파국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북한 당국은 부족한 외화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 지점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일 것인데, 그와 함께 경제 정책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의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방문과 교류, 즉 해외 친척 방문 및 비즈니스 활동이 허용 및 장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해외 왕래가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과의 선교 접촉점이 복원 및 확대되리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이전부터 거론되어 온 전후 복구를 위한 대규모 북한 노동자 파견 등도 선교적 관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기도

현재 북한은 북러 밀착 관계 속에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원활한 내부 통제를 이어가는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북

시금 외화를 지불하며 대량의 식량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인력 수출과 여러 불법적인 활동(해킹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핵무기와 군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우선인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투자는 제한적

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지만, 전쟁 종식 이후에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런 가운데 북한 내부 사정도 그리 좋지 못했다. 지난해 내내 환율 급등과 물가 불안 등에 시달렸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신년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는 북한의 입장은 올해 특별한 이벤트들에 대비하며 민생 안정과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 도출에 힘쓰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현재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미국의 행보를 관망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속으로는 러우전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러시아로부터 최대한으로 이익을 취하고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어떻게 대응할지 복잡한 계산에 골몰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슬로건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내세워왔고 그에 따라 올해에는 가시적인 경제적 치적과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부담도 예년보다는 클 것이다.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북한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시각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군왕의 지혜를 비웃으시며(시 2편) 악한 계획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며(창 50:20)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먼저 러우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국 국민들 뿐 아니라 그곳에서 피 흘리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생각할 때 하루 속히 전쟁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이것이 단순한 핵 군축 협상이 아닌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북한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억압을 중단하는 개선된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2025년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더 넓게 여시고 북한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리라 믿는다. 그 시기가 올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름을 충분히 채운 다섯 처녀(마 25:1-13)와 같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루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란다. 



# 2025년 북한정세 전망

한 기 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 북한, 12월 말 당 전원회의 소집 및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예고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 수년 들어 매년 12월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로 그해 정책집행 성과를 ‘총화(결산)’하고 다음 해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연말에도 노동신문은 북한이 12월 23~27일(5일간) 8기 11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해 ① 2024년 정책집행 결과와 2025년 과제 ②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 사업 보고 ③지방발전정책의 금후 과업 ④교육토대 강화 (교실신축) 문제 ⑤국가 예결산 승인 ⑥당 기구 사업(개편) 문제 ⑦인사 개편 문제 등 7개 의제를 토의했다고 보도(12.29)했다.

북한은 통상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내부 문제를 의제로 토론하면서도 향후 정책과제 제시에서 부분적으로 대남 및 대외문제를 거론해 왔다. 그러나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대남·대외문제가 의제에서 빠졌고 정책과제 제시 내용에서도 ‘대미 강경정책 구사’를 간략히 언급했을 뿐 대남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2023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이 비중을 두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과는 달랐다.

북한은 통상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 이어 이듬해 1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소집해 내각 사업 방향(주로 경제문제)을 제시하고 예결산을 승인하

며, 법률을 제·개정한다. 이따금 김정은이 참석해 국정 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한다. 북한은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소집해 내각 사업 문제, 예결산 문제, ‘건재공업법’ 및 ‘바닷가양식법’ 채택, 중앙재판소 사업 결산, 조직(인사개편) 문제와 헌법 일부 조문 수정 문제를 토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대남 정책에 대해 방향 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1년 전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지시한 ‘통일·민족’ 개념 지우기와 해상국경선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있을 지가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공개한 12월 당 전원회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내부 정책성과와 방향을 소개하는데 주안을 둔다. 그리고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북한의 대남 태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소개한다.

## 2024년 정책성과 : ‘압도적 국방력 강화’, ‘경제 전반 성장 추세’ 선전

김정은은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을 “건국 이래 미증유의 새 변혁 시대를 열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성과로 “정치 분야에서 절대적 위세 상승”, “국방건설에서 사변적 성과 쟁취”, “12개 경제고지 재점령 및 풍년” 등 “경제 전반의 장성(성장) 추이” 등 분야별 성과를 나열했다.

‘자위 국방건설’ 성과로는 “압도적인 전력(戰力) 강화, 새로운 전략적 억제력 실제 과시, 국방과학기술력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 시위”를 주장했다. 과거처럼 ‘핵미사일 고도화 성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앞의 ‘성과’는 고농축우라늄(HEU) 시설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기지 공개, ‘최종 완결판 화성-19형 ICBM 시험 발사 성공’(10.31) 등 핵미사일 고도화의 진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경제도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성장’한 것으로 선전했다. 우선 연초 제시한 12개 중요 경제 고지를 ‘점령’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압연·강재 127%, 유색금속(비철금속) 106%, 질소비료 103%, 전력 101%, 석탄 110%, 시멘트 101%, 통나무 104%, 수산물 101%, 철도화물수송량 108%, 천 101%, 알곡 107%, 살림집 건설을 성과로 열거했다. 회의에서는 살림집 실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노동신문(12.28)을 통해 2024년에 “1만 5천여 세대의 살림집·학교 건설, 6천여 세대의 살림집 보수”를 소개했다.



〈5개년 계획 완결을 맞아 과업 관철을 강조하는 북한의 신년 선전화〉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주요 경제 정책 목표로 생산 자체보다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설비·기계 ‘정비보강 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정비보강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자립 경제의 발전동력을 다졌다”면서 금성트랙터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을 성과로 제시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과학 농법으로 또다시 풍년을 이룩하고, 관개 건설 완성으로 농업생산의 토대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필자의 판단에는, ‘북한 당국의 돈주머니는 다소 늘었으나, 주민 생활난은 여전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이 올해 경제가 ‘승세·양호’로 선전해 수해 복구 자신감을 보여 생산능력 증대, 국방경제(무기 수출 효과) 효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는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 생활난은 김정은의 ‘지방발전 추진’

에도 불구하고 소득 감소, 시장통제와 물가 상승, 당국의 곡물 유통 독점, 수해 피해 등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의 당면 문제점은 민심 이반 현상이다가 간부들의 당정책에 대한 불신과 ‘패배주의 만연’에 있다. 지난해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간부들을 비판하는 사례가 늘었다. 간부들이 “당중앙 지시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극도의 사상 해이와 직무 태공(태만)을 한다”(7.13)거나, “당정책을 비속화하고 왜곡 집행한다, 주관주의·취미 본위주의식 사업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자기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단위 특수화나 본위주의 현상을 짓뭇개라”고 주장했다(10.10).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에 간부 정예화(‘정간화’) 사업을 전개했다. ‘정치적 저능아’의 입당을 통제하고, 중요 직책에 ‘정수분자’를 등용하면서, 당정책 비판자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등 당 대열을 재정비했다. 최초로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간부사업일꾼회의’를 소집했고, 당중앙간부학교를 개교해 중앙당 간부들도 재교육했으며, 입당·등용·승진 등 간부 사업 체계를 재점검했다. 9차 당대회에서의 중앙당 지도기구 개편을 앞두고

2025년에는 기층당 조직에서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정책과제 : 5개년 계획 완결, 지방 및 교육정책 등 위민 시책 제시

김정은은 2025년도 정책과제에서 “5개년 경제 계획(2021~25)의 성과적 완결”과 “다음 단계 발전 노정(차기 5년 계획) 준비”를 중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과학문화·근로단체·대외사업·군사·당 사업 순서로 과제를 나열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속·화학, 전력·기계·석탄·철도운수 등 기간공업 부문의 점령 목표 제시, 살림집 등 건설 투쟁 지속, 통일적 경제관리 체계 확립, 알곡 고지 점령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공업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의제로 제시하면서 김정은 표(表) 정책으로 선전했다. 내용은 2024년 이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경공업 공장을 신설하는 ‘지방발전 20×10정책’을 2025년에도 지속하면서 지방공장에 보건·문화·양곡관리 시설을 덧붙여 건설할 것이고, ‘교육토대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 교사(校舍)를 개건·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사 분야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사업 강화, 현대전 연구, 국방과학기술 진보, 방위산업 발전을 주문함으로써, 러시아 파병 혹은 무기 수출 및 첨단 무기 기술 수입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당 사업에서는 ‘8차 당대회 완수 투쟁과 인민을 위한 복무’를 강조함으로써 당 창건 80돌 행사와 9차 당대회를 ‘축제’로 맞이하기 위한 노력 동원 강화와 친(親) 인민 시책 확대를 시사했다.

필자는 이번 12월 당 전원회의를 김정은의 ‘위민헌신’ 리더십 부각·선전에 주안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7월 압록강 수해 때 김정은의 피해 복구 지시와 수재민 평양 체류 조치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새겼다고 주장했고, 별도 의제로 지방발전 정책 지속 추진과 ‘교육토대 강화 사업’을 새로 제시하면서, 이를 김정은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선전했다. 과거 ‘핵미사일 고도화’를 핵심 성과로 제시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방정책과 수해 복구 사업을 성과로 꼽아 핵 개발 장기화에 따른 민심 이반의 확산을 시사했다.

## 2025년 대미·대남 태도 : 미북 직거래, 대남 화색지대 도발 경계 필요

김정은은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 분야를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을 “자주 세력권의 장성·약진, 패권 세력권의 급격한 약화”로 평가해 정세가 ‘반미 연대권’에 유리해진 양 해석하면서, 향후 대외전략으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대미 강경정책 주장은 ICBM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무장장비전시회 연설에서도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끝까지 가보았으나 확인한 것은 변함없는 적대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볼 때 북한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관망하면서 간헐적인 전략 도발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이나, 미·북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양자 간의 브로맨스를 강조해 미·북 간 대화는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 구조가 2018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후 순위에 위치하며, 김정은도 파병 등 대러 밀착에 몰두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하노이 노딜(no-deal)이라는 실패를 경험해 과거와 같은 톱-다운식 협상도 쉽지 않다. 협상한다면 북한은 그간의 핵 고도화 성과를 이유로 군축 회담을 요구할 것이나, 미국은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와 핵 개발 도미노를 유발하는 ‘북한 핵 보유국’ 인정이 불가하다. 다만 트럼프의 흥정 기질로 정치적 곤경에 처하면 북한과의 직거래를 통한 ‘핵 동결’ 타협 가능성이 우려되어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 대남정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초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언급한 점과는 크게 달랐다. 김정은이 미국을 비판하면서 “미·일·한 동맹의 핵·군사 블록화”와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공 전초기지로 전략한 현실”을 언급한 내용이 전부이다. 한국의 계엄(12.3)과 탄핵소추(12.14) 등 정국 혼란 상황에 대해서도 회의는 공개 거론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계엄 사태에 대해 뒤늦게, 신중하게 보도한 것이나, 계엄 사태 이후 대남 공세가 다소 수그러진 점과 같은 맥락이다. 적극적인 대남 혼란 선동으로 역효과를 초래하기보다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괴뢰 한국 정세’를

수시 보고 받으면서, 이번 당 회의에서도 ‘한국의 혼란상’에 대해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북한은 한동안은 대남 단절·무시 행태를 지속하면서 고강도의 물리적 도발은 자제하는 가운데 GPS 교란 전파 발사, 가짜뉴스 전파를 통해 한국 사회 혼란 극대화를 위한 희색 지대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 정치가 과도하게 분열되고 사회 혼란·국정 마비·안보 공백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가 재발할 수 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절차를 약점으로 삼아 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년 6월 있었던 북한의 GPS교란으로 조업 장애를 빚은 어민이 GPS 신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YTN)〉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2025년 북한정세는 내부 사정 못지않게 이번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외·대남 변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북한의 정책 방향 예단을 어렵게 한다. 김정은의 푸틴과의 밀착 효과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부작용,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한계, 그리고 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정국 혼란 장기화는 2020~2021년처럼 김정은이 ‘양대(당 창건 80돌과 9차 당대회) 당 행사의 순조로운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을 흐려놓으며 북한의 돌출 행동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정세의 유동성과 정세 조작 가능성의 증대 상황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이 추진 중인 친(親) 인민 시책의 효과와 한계, 대러 파병 베팅의 효과와 부작용,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기대와 강압 가능성, 특히 한국 혼란 정국에 대해 표면상의 관망적 태도와는 다른 이면공작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 서둘러 우리 내부의 혼란 상황을 추스르고, 한·미·일 대북 공조 체계를 회복하면서, 북한의 대미 직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민심 이반과 간부들의 정책 불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

# 2025년 북한경제 전망

양운철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다양한 국내외 언론 보도나 현지 방문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2024년의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고, 다수의 기간산업들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군수 부문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군이 일종의 용병으로 파병되었고 탄약과 무기 지원 등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4년도 북한경제 성과는 2023년과 비슷하거나 소폭의 경제 성장세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논의 내용

북한의 경제 상황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자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 정책, 경제 기조를 추론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5년 올해도 작년처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로 신년사를 대체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기대만큼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 연설을 통해 알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다른 이유로는 며칠 동안 논의된 전원회의 내용을 주민들에 다시 홍보하는 것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각 산

하 단체나 주민들에게 전원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배포하고 이를 암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주민들에게 신년사 암기를 강제했던 지시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25년을 조선로동당 창건 80년이 되는 해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원회의 내용 속지는 당 창건 80년 기념 성과를 내세운 암묵적인 주민들에 대한 충성 강요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전원회의의 결정 관철을 강조하는 북한의 신년 선전화〉

## 지방발전 20×10 정책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4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표현처럼 해마다 20개 지역(군)에 현대적인 공업 생산 시설을 건설하여 10년 내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대폭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2025년 1월 8일 김정은이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준공식에서 김정은은 “지방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조건 보장 등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라”고 독려하고 있다.<sup>1</sup> 이 정책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실용적이며 진취적으로 보이지만, 열악한 북한경제가 이런 부담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많은 중소형 공장을 북한 전역에 건설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은 전형적인 후진국들의 경제발전 정책이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소요된다. 한국에서도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경제와 주민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경제 강국인 한국도 일정 부분만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국가자본이 절대 부족한 북한이 정책 일부를 시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과 달성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북한은 다양한 정치·경제적 강령을 내세워 이상적인 경제정책을 시도해 왔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낙후된 지방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목표가 있지만, 지방의 경제 인프라가 보완되지 않는 현실에서 달성 불가능한 전형적인 북한식 하향(top down) 정책의 한 사례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알

1 voakorea.com/a/7929327.html

려지지 않고 있다. 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용 충당이 불가능하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막대한 예산을 지방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이유는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국가의 자원 선택 문제이다. Samuelson이 언급한 버터(민수재)와 대포(군수재)의 선택 문제이다. 북한이 지방발전을 위해 군수 부문의 예산을 전용한다면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금만 줄여 민수 부문에 투자한다면 북한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전원회의 확대 회의

전원회의에 이어 1월 13일과 14일에는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지방발전과 관련하여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이 첫해부터 은을 내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당의 지방발전정책의 철저한 실행을 위한 작전과 구도를 구체적으로 실속 있게 해나가며 설계 작성과 설비제작, 원료보장과 생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를 기민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강조하고 있다.<sup>2</sup> 북한의 언술은 장황하지만, 실질적인 부문에서의 개선과 강력한 지도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경제문제는 과거에 논의되었던 유사한 정책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2024년 경제성과인 경제의 전반적 성과와 관련하여 “국가경제전반이 장성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을 이룩하였다”라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경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 근거로 2024년 북한은 심각한 수해 피해를 겪었고, 중국과의 무역도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조선신보, 2025.1.15. 참조.

## 비참한 주민들의 삶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은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UN 결의안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무역 제한, 금융 거래 제약, 원자재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경제제재 이전보다 더욱 힘들 것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도 어려운 편이다. 북한의 2023년 농산물 작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2024년도의 경우에는 가뭄과 홍수 등으로 농작물 수확이 부진하여 전반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청(ERS)은 2024-34 세계 식량 안보 평가(IFSA)보고서에서 2024년 북한의 식량 불안정 비율이 44.1%로약 1천160만 명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sup>3</sup>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식량 부족 외에도 생필품 부족, 전력과 수도 공급 부족, 열악한 의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의 생활 인프라가 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능력 있는 주민들은 장마당 등에서 불법적 경제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도시보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훨씬 힘들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자원 부족으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북한 황해남도의 옥수수밭에서 일하는 주민들 (사진=VOA)〉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경제가 어렵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파견했고, 그 대가가 상당하여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파견한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2025년 1월 초 현재

3 미 농무부 “북 인구 절반이 식량 위기”, 자유아시아 방송, 2025.01.17.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1월 1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SecurSerUkraine))

약 4천 명의 북한군이 사망했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해서 북한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하려고 한다. 북한은 전쟁 참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인 1명당 약 2천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금액이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격의 자금 유입은 대부분 김정은의 개인 수입으로 치부되거나 군수산업 개발 비용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북한은 사이버 금융 범죄로 2024년에만 약 13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를 탈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4</sup> 관련 수입은 모두 김정은과 특수 당 사업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 동북아 질서 변화와 북한경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높아질 것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은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교류와 협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예를 들면, 2024년 2월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반체제 지도자 알렉산더 나발니의 사망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약 러시아의 500개 이상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에는 한국의 기업들과 거래를 해 온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한국이 향후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 북한경제도 러시아와 관련된 국제정치의 영향으로 현재보다 더 어려운 경제제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4 <https://www.voakorea.com/a/7907621.html>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은 전쟁 수행을 위해 북한군을 일종의 용병으로 고용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나, 자국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부를 얻는 것 모두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윤리적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지원이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인적 자원의 손실은 몇 십 년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예상보다 크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인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경제가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북한군 인명 피해로 인한 손실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얻는 부가 일반 주민에게 분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25년도 북한경제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을 더욱 압박하고 착취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 2025년 북한경제 전망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2025)의 마지막 해인 2025년에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지만 기대했던 성과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향후 10년간 매년 20개씩 저개발된 지역에 보건, 과학, 교육 시설을 개선하여 농촌 지역을 현대화하고, 현대식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 능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본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고, 자본이 있더라도 지출의 우선 순위가 핵과 미사일과 같은 군사부문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체결 후, 북한에 군사 지원, 곡물 및 정유 등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북한은 연료나 식량 지원보다는 군사 기술 지원을 우선 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2025년에도 경제가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여러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형식적이지만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평양시 5만 호 건설사업, 원산-갈마 해안관광 지구 사업 등을 형식적이라도 완성할 것이다. 그간 주장해 온 인민대중제일주의도 어떤 형식으로든 일부 성공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가시적인 경제성이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시행한 여러 경제발전 조치들은 체제를 유지하

기 위한 단순한 정책들이었다. 북한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전방위적인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에 달려있다.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통해 계획경제의 모순을 제거해야만 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심화하여 필수 자원과 자본을 일부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정책은 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북한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시장의 자율적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가 주도의 통제적 물가와 자원 배분은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할수록 북한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 과감한 개혁이나 개방과 같은 획기적인 경제 돌파구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 북한 일반 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북한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생계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민생경제의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2025년 북한경제를 기원한다. 🙏

### 칼럼 3

##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조직구성을 통한 2025년 대내외정책 방향 분석

최 경 희 ((사) SAND연구소장, 도쿄대 정치학 박사)

### 들어가며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과의 접근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북한 핵보유국’이라며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가 미·북 간의 협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그 동안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교리법’을 제정했던 김정은 정권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한국의 국내 상황이 혼란하고 어려운 실정에서 북한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선택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평양에서 소집된 노동당 제8기 11차 전원회의(2024.12.23.~27, 5일간)는 북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의 국가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고 여러 가지 정책 소수를 제공했다. 전원회의는 정치적 결속 강화, 경제 자립의 가속화, 군사적 억제력 확대,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라는 네 가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사문제,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대내외의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글은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당내기구 사업과 인사 및 조직구조 재편을 통해 2025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고찰하고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내각총리와 부총리로 각각 임명된 박태성(위), 김정관(아래)〉

대외외정책 특징, 실현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 1. 내각구성의 특징: 주민 소비재 공급 방치, 러시아 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 준비

이번 전원회의는 2024년 12월 3일, 12월 말에 개최한다고 예고했으나 개최부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원회의의 폐회 2일 후인 12월 29일 발표했다. 전원회의를 대형 정치 이벤트로 선전하며 정치적 결집을 도모하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이다. 또 전원회의의 주요내용을 새해 신년사로 대체하던 과거와 달리 바로 발표한 점도 흥미롭다. 단 매체에서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민생행보 내용을 메인 기사로 다룬 부분은 2024년과 동일하다. 따라서 최근 들어 김정은이 직접 발표하던 신년사 부재는 그의 생일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한 7건<sup>1</sup>의 의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당내기구사업과 조직구성의 재편이다. 당·국가·군의 인사이동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내각 인사에서 과학기술발전과 지방발전 건설정책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를 추진할 것을 보인다. 내각 총리 김덕훈을 당중앙위원회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으로, 당중앙위 과학교육비서 박태성을 내각 총리로 임명했다. 박태성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를 굳힌 정통 당 관료 출신이다. 과거 3년간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거쳐 당 선전 비서로 맹활약했다. 김정은이 등장하던 2010년부터 밀착수행하며 최측근으로 당 조직지도부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숙청과 복귀를 반복했으나 북한 내부에서 충성심(이념적 성향)과 공격적 성격에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판이다.

또 내각 부총리에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을 임명했다. 현직 군인이 인민 경제 분야를 지휘하는 내각 부총리로 기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민무력상, 국방상을 역임했고 인민군 차수에서 상장으로, 대장, 중장으로

계급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경험에 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는 중장계급장을 차고 참석했다. 김정관은 김정은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집행에서 건설 분야 담당 부총리로 등용됐다. 공병 출신인 김정관이 군인 건설자들이 대거 투입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성 총리와 김정관 부총리 등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북·러 경제교류 가능성이다. 2024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시 박태성과 김정관이 수행단에 합류했으며 박태성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 전쟁 파병 군인에 대한 경제적 대가와 전후 군인노동력 파견으로 러시아의 복구건설과 식량, 물자를 교환하는 등 북·러 경제교류가 예상된다.



〈24년 6월 1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대화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위) / 24년 1월 16일 방러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한 최선희 외무상(아래)〉

## 2. 최선희 외무상을 통한 대미·대러 외교관계 시동

둘째, 최선희 외무상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전격 승진했다. 최선희는 1980년대 외교부 통역관으로 입부한 후 현재, 북한의 미국 전문가로 외무성 미국국 국장, 제1부상을 거쳐 성장한 대표적 미국통 외교관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대외정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24년 1월과 11월에는 러시아 방문 중에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에서 두 차례의 면담을 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은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중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나해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기대하며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제거하고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 주장이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직접거래를 추구하며 남한이 참여할 빌미를 제거하려고 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에서 교훈을 얻은 김정은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최선희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를 통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며 러시아와 다방면의 협상을 통해 서방세계에 정상적 독자적 국가 이미지를 추구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최선희 외무상(위)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방두섭 사회안전상(아래)〉

1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는 1.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2025년도 투쟁 방향에 대하여, 2.당중앙 감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 정형에 대하여, 3.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 과업에 대하여, 4. 나라의 교육토대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5. 2024년도 국가예산 집행 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6.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 7. 조직 문제이다.(노동신문 2024.12.29.).

### 3. 전신타세 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질서 확립 시도

셋째, 방두섭 사회안전상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결정과 최고 명령, 지휘권을 행사하는 군최고지도기관인 점을 상기할 때 사회안전상의 진 입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다. 방두섭은 야전군 출신으로 군단장, 제1부참모장 을 역임했고 2024년 7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에서 사회안전상에 등용됐다. 물론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3년 2월 신임 최 부일 인민보안부장(현재 사회안전상)이 이미 겸직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 원을 잠시 지냈던 바가 있다.

하지만 방두섭의 경우 사회안전상 직책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사회를 전시체제에 버금가는 분위기 조성과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10월 당창건 80주년과 내년 초 제9차 당대회 개최를 예정하는 가운데 사상 결집과 건설부분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전신타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나가며

이상에서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임명된 인사를 통해 대내외정책의 방향을 분석했다. 북한에서 내각의 기능은 인민생활 소비재의 생산자이며 공급자이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 인사 구성에서 인민생활은 방치하고 책임은 회피하며 지방공 업공장 건설과 주민 통제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북한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을 유리한 극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승리를 자처하며 ‘당의 새로운 전략 적 로선’을 제시했다. 그 6개 결정안 가운데 ‘둘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시 하고, 셋째,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과정이며 국제적인 지향과 노 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북정상회담이나 양국 간의 직접대화에 핵군 축 협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밀착하며 러시아를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 술 유입을 시도한다. 특히 노동력 공급과 경제와 물자 교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 는 그동안 추진했던 국제사회 경제제재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수기

##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5)

김 열 매 성도

우리 가족은 추방되어 추운 겨울 달구지에 이삿짐을 싣고 새로운 마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나 쓸 법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던 석탄 창고보다도 못한 작은 건물 앞에 멈추어 서신 어머니를 보며 내 마음속에서는 ‘설마 이 집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지만 그 생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건물의 벽체에는 흙이 다 떨어져 앙상한 나뭇결들이 드러나 있었고 집 안에는 우리들 키에 닿을 듯 말듯한 천장이 비에 젖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데군데 뚫린 천장 탓에 우리는 집안에서도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출입문은 몇 개의 판자들이 더덕더덕 붙어있어 간신히 문의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궁이를 들여다보시고는 불을 지피기 위해 땀감을 주우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을 지폈지만 구멍이 송송 뚫린 구들골(방고래의 방언,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마다 연기가 터져 나와 사

람 4명 정도 누우면 끝나버리는 손바닥만 한 방을 시커먼 연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시멘트 대용으로 소동과 사람들이 쓰다 버린 석회가루 찌꺼기,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연기가 터져 나오는 구들골마다 발라 메꾸셨습니다. 북한에 소들은 낱알 대신 옥수수 짚만 먹고 살아서 똥도 푸석했지만 우리에게 그런 똥이라도 있어야 아궁이며 가마며 틈을 메꾸어 간신히 살 수 있었습니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있어 그냥 앉으면 몸에 흙이 묻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비닐 조각을 바느질 하여 이어 붙여 흙이 날리는 구들 위에 퍼 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앉거나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허술한 집에까지 우리를 쫓아 온 도청기 소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감시하는 눈들도 여전했습니다. 길 건너 집 할아버지는 토방에 앉아 24시간 우리를 감시했고 동네에 젊은 이들도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오빠와 우리 자매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



시당하며 살다보니 혹 누군가 나에게 살갑게 다가올 때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속으로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저러는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이 하는 말과 행동이 매일매일 보위부에 상세히 보고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엄격한 통제와 감시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행동을 조심해야 했고 입을 열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돌아볼 때면 추방당한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피난처였다고 추억합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비극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추방당하던 당시도 고난의 행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고 먹을 것이 없어 주변에 아사자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을 찾아 풀주머니를 들고 들판을 헤매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추방되지 않고 고향에 머물렀더라면 이미 메말라 비틀어진 허허들판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것이 뻔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쫓겨난 곳은 산이 가깝고 들에 풀도 많아 생존을 위한 먹거리들을 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쫓겨난 곳에서의 생활은 이러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시면 우리 형제들은 손에 낫과 작은 손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서 등에 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주머니를 들고 들판에 나가 먹을 풀을 뜯어오곤 했습니다. 산속 나무를 찍어낸 곳에는 다시 알곡을 심어 키워 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국가 일을 하고 새벽과 저녁 늦게까지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늘 등에는 나뭇짐과 풀주머니가 들려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 안에 노래들은 사라진지 오래였고 아무리 애를 써서 기억해내려 해도 할머니께서 배워주셨던 노래가사들이 거짓말같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년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홀로 풀을 캐러 언덕진 들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살필 수도 있고 혼자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풀을 뜯으며 조용히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다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풀을 뜯는 이 모습도 보고 계시죠, 내가 슬퍼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죠.” 그렇게 들판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참을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 주시는 것 같이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던 가사가 풀을 뜯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의 가락 한 구절을 부르기 시작하자 또 다른 구절이 생각 났습니다. 너무 기뻐 풀을 뜯다 말고 집으로 달려 내려와 까먹지 않게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에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게 될까 두려워 생각나는 즉시로 깨알같이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동생에게도 보여주면서 만약에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면 빨리 숨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찬송가를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나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뒤뜰에 앉아 그 기록한 찬송을 보면서 조용히 부르곤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중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과 처한 형편을 다 그 찬송에 담아 둔 것 같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슬픔에 잠겨 목이 꼭 메어올 때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 돌같이 묵쳐있는 그곳을 다 풀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



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결국을 보게 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시고 난 뒤 우리 가족을 유별나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방 전에 살던 동네의 한 아주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기만 하면 독설을 퍼붓고 모질게 대하던 분이셨는데 그 집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아이를 잃고도 우리 가족에게 욕을 하던 분이셨는데 우리가 추방되고 2~3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그 아주머니의 겨우 돌 지난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랜 반동 농의 집안을 잡는데 공을 세웠다면서 국가로부터 컬러텔레비전을 선물 받고 승승장구하며 땡땡 거리며 우리를 괴롭히던 보위부 지도원이 갑자기 어떠한 사건으로 국가에 끌려가 감옥생활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저들의 눈이 붉아 터져라”고 하면서 독설을 퍼붓던, 나의 작은 아버지나 삼촌까지 비난하며 우리 가족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도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감옥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굴었던지 아직도 그들의 못된 말들이 잊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순간 어떤 확신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다 보고 계셨구나.’라

는 안도와 함께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구나. 어떤 나쁜 일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생각은 너무나 강렬하게 나의 심령에 새겨져서 처음 이 생각이 들었을 때처럼 여전히 한순간도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우리가 추방된 것이 정말 재수 없고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반동 농의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방을 당함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긴 시간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로왕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추방당한 곳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과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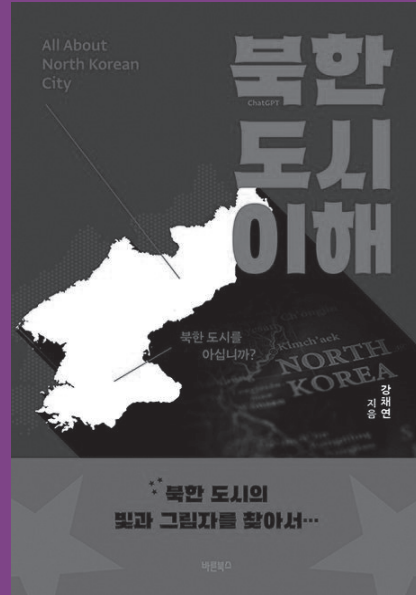
어느덧 쫓겨난 곳에서 10년의 시간이 흘러 제 나이도 17살에서 27살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처녀들이 보통 24살이 되기 전에 모두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지만 저나 오빠는 혼기가 차도록 ‘정치범의 자녀’라는 딱지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대 처녀시절을 보내면서도 얼굴에 화장은커녕 늘 일하고 가족들을 먹이느라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은 그저

꿈과 같았습니다. 생활이 괜찮은 집 처녀들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농장에 출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치장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런 제가 나이 먹어가는 것을 보다 못한 외가 친척들이 일명 ‘열매 결혼시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열매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남편감을 만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 가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결혼의 연을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이란 산에서 물고기 찾는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외삼촌이 어찌저찌 손을 써서 잠시 아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보름간의 기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모네 집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기차를 타는 날 첫눈이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내리는 눈을 맞으며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내시며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솔직하게 우리 가정 이야기를 다 하고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처음 마을을 벗어나 이모부와 외삼촌이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희 이모부와 외삼촌은 좋은 직책에 살림도 괜찮은 집이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셨습니다. 이미 주변을 모두 물색하여 제 남편감이 될 사람을 찾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모부는 절대로 저희 집 사정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열매야, 너희 집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가는 여기서도 시집을 못 가게 될 거다. 누가 정치범인 딸과 살겠다고 하겠니?” 그러고는 아이를 낳고서라도 몇 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저를 생각해보면 그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세상물정 모르는 소녀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의 모든 사정과 마음을 아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을 위해 이곳까지 내려왔지만 이곳에 내려온 일이 잘한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고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그저 두려움에 차 있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의 모든 순간에 나보다 앞서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계속)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북한 도시 이해  
저 자: 강채연  
출판사: 바른박스  
발행일: 2024.12.16  
가 격: 21,000원

북한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수도인 평양, 북쪽 관문도시 신의주, 탈북이 활발했던 혜산 등 자주 나오는 지명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북한의 도시들이 얼마나 되는지 곰아보려고 한다면 몇몇 잘 알려진 곳들 외에는 우리가 아는 도시나 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느끼게 된다. 뉴스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자 한다면 북한의 주요 도시와 지역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기란 아쉬운 일이다.

오늘 소개할 책 ‘북한 도시 이해’는 북한의 여러 도시들을 소개하는 북한도시입문서이다. 이 책은 북한의 각 도시를 4가지 카테고리로 묶었다. 제 1장 ‘가깝고도 먼 도시’는 주로 북한 남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들과 평양을, 제 2장 ‘항구도시의 낮과 밤’은 북한의 주요 항구 도시들을, 제 3장 ‘국경이란 무엇일까’는 북중국경에 위치한 도시들을, 제 4장 ‘금은보화에 가려진 그림자들’은 주요 광업/공업 도시들을 다루었다. 각 도시별로 그 도시의 특징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이 책이 딱딱한 학술 서적이기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에세이

형태의 입문적 서술을 가미하여 각 도시의 특징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반영하듯 이 책은 어떤 엄격한 틀에 맞춰 도시를 분석하기 보다는, 각 도시가 가진 특징적인 면들에 주목하여 편한 문체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어떤 도시는 역사를, 어떤 도시는 산업을, 어떤 도시는 남북 협력의 경험 등 이야기를 듣다보면 가보지 못한 북한의 도시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기분이 든다.

이 책에서 다루는 도시들 중에는 상당히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친숙한 유명한 도시도 있지만, 뉴스에서 지나가듯이 이름만 언듯 들어본 도시도 있다. 유명한 도시만 다루었으면 아쉬웠을 텐데 비교적 낯선 도시들도 편안한 무드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 생각된다. 또 시를 이용해 각 북한 도시 이미지를 묘사한 일종의 상상화를 각 도시 시작 부분에 삽입을 했는데, 실제 북한 사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때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책이 흔히 책 안에 지도를 삽입하여 대략적인 도시 위치나 도시의 모습 등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 책은 그러한 지도 이미지가 부재한 것이 아쉽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룬 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도시도 있다 보니 지도 상에 위치 정도는 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계간으로 ‘북한지역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도시를 다룬 이러한 교양 서적이 왠지 모르게 눈에 들어오고 반갑다. 본 선교회의 계간지 ‘북한지역연구’에서는 북한의 주요 도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뿐 아니라 특별히 해당 지역의 교회 역사에서부터 해당 출신으로부터 듣는 주민들의 생활상과 문화까지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각 지역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곳에 있었고, 지금도 지하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다. 또 통일 이후 우리가 북한 각지를 찾아가고 그곳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면, 지역과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통일 준비의 일환임을 느끼게 된다. 이번에 소개할 책 ‘북한 도시 이해’가 북한의 각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픈도어선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

##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 나는 그와 잘 지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워싱턴 미 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한 후 취임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그들은 그(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는 용어의 외교적 함의를 인식했는지,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는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난 그(김정은)가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의 부동산 입지가 훌륭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작년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해안가에 콘도를 지으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1월 21일) 

## 생포된 북한군 병사 “우크라이나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심문 받는 북한군 병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월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병사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 공개했던 북한군 2명 중 1명이다.

이 영상에서 자신의 소속을 "정찰국 2대대 1중대"라고 밝힌 이 병사는 북한에서 선박을 타고 러시아에 도착한 뒤, 열차에 탑승해 육로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선박에는 북한군만 100명 조금 넘게 승선했으며 그 인원이 그대로 열차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선박의 종류에 대해서는 러시아 선박인 것 같았으며 군함이 아닌 화물선 같은 일반 선박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여기 나와서까지도 러시아로 가는 줄도, 우리의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의 병력 손실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질문에는 "같이 온 동료 중에서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면 응당 군대에 가야 한다며 자신도 17살에 입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 파병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병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며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보다) 산이 얼마 없다는 것만 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군인들을 러시아 영토로 이동, 훈련시키고 그러한 정보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사실은 포로들의 말을 통해 확인됐다"며 "북한이 이 전쟁에 가담한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1월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파병 북한군에게 포획되기 전 '자폭' '자결'을 강조하고, 파병된 북한군인 가족들은 '노예병' '대포밥'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1월 21일 외론보도 종합) 

## 북, 극초음속IRBM 발사… 김정은 “누구도 대응못할 무기”



북한이 1월 6일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으며, 딸 주애도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지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으며 "1차 정점 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km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당 발언은 이 미사일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에 출동하는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월 6일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RBM 1발은 사거리 3천~5천500km의 중거리급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초기 평가됐지만, 실제로는 1천100여km를 날아 동해상에 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괌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 연합뉴스, 1월 7일) 📰

## 북, 전원회의 결과발표... ‘대미 최강경’ 천명에도 ‘트럼프2기’ 앞두고 신중모드 역력



북한이 내년도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예년에 비해 절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달 출범하는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도 일단은 절제된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12월 23~27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발표에서 북한은 회의를 통해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발표에서는 핵무력과 관련한 내용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대남 메시지도 없었다. 1년 전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한을 ‘미국의 반공전초기지’라고

비하한 게 전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외에 대외 부문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역량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다”며 반미·반서방 전선에서 북한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군 파병과 같은 러시아와의 협력 상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 분야 12개 고지를 완수했다며 “자립경제의 발전 동력과 잠재력을 제고했다”고 선전했다. 농업 실적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작”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 2024년 당·국가정책 집행 평가와 2025년 투쟁방향 ▲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 사업 평가 ▲ 지방발전 20×10 정책 첫째 사업 평가와 이후 과업 ▲ 교육 토대 강화 조치 실시 계획 ▲ 2024년 국가예산 집행 평가와 2025년 국가예산안 ▲ 당내 기구 사업 ▲ 조직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29일) 📰

## 오픈도어선교회 월드와치리스트 2025 발표... 북한, 기독교 박해국 1위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1월 15일 세계기독교 박해지수 2025(월드와치리스트 World Watch List)를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최악의 기독교박해국가 1위로 조사되었다. 북한은 기독교 박해국 중 1993년 이후 23번째,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선교회 발표에 따르면 폭력과 살해 등 높은 수준의 박해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은 전년 대비 1천 5백만 명 증가해 78개 나라, 3억 8천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은 4천 4백여 명에 달했고,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가정·상점·사업체가 공격받은 사례는 2만 8천 건이 넘었다.

박해국 조사를 통해 나타난 흐름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반기독교 폭력이 증가했으며, 독재 국가나 내전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아 생명과 가정,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 현재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상위 10곳 중 8곳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만성적인 정부 불안정으로 인해 이슬람 무장 세력 등에게 기독교인이 표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3450만 명의 난민 중 약 1620만 명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박해로 인해 교회가 지하화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기독교인 박해국 목록에 오른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내몰렸다. 이 외에도 예멘과 미얀마, 수단 등 내전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부당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기독교인들, 10년이 넘는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계속된 위기를 겪은 시리아의 교회,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소식도 보고서를 통해 언급되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전 부총재 에버트 야곱 슈트(Evert Schut) 박사가 월드와치리스트의 선교적 의미를 짚기도 했다. 한국오픈도어 측은 “월드와치리스트가 단순한 조사 자료가 아닌 한국교회와 신앙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1** 2025년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25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제 9차 당 대회 등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내세우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경제적 성과와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건설 사업들과 치적들이 대부분이며 진정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한 조치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방향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러우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희생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상당하여 사상자의 수가 이미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 더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이 북러 관계 밀착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고 북한이 이를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도 러우 전쟁의 향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무고한 피 흘림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전쟁 종식을 통해 해당 지역과 한반도 모두 평화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 관련 연구와 보도들, 그리고 현장의 소식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강제복송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관련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제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은 소위 3대 악법이라 불리우는 각종 사상문화 통제 법령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강도 높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도 미디어 접촉과 공유를 죄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년에서 십 년 이상의 극심한 처벌을 선고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및 각종 강제 노동과 고문 등 기존부터 제기되어 온 인권 문제들도 여전하며, 이러한 문제가 기독교 박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악습과 행태가 하루 속히 중단 및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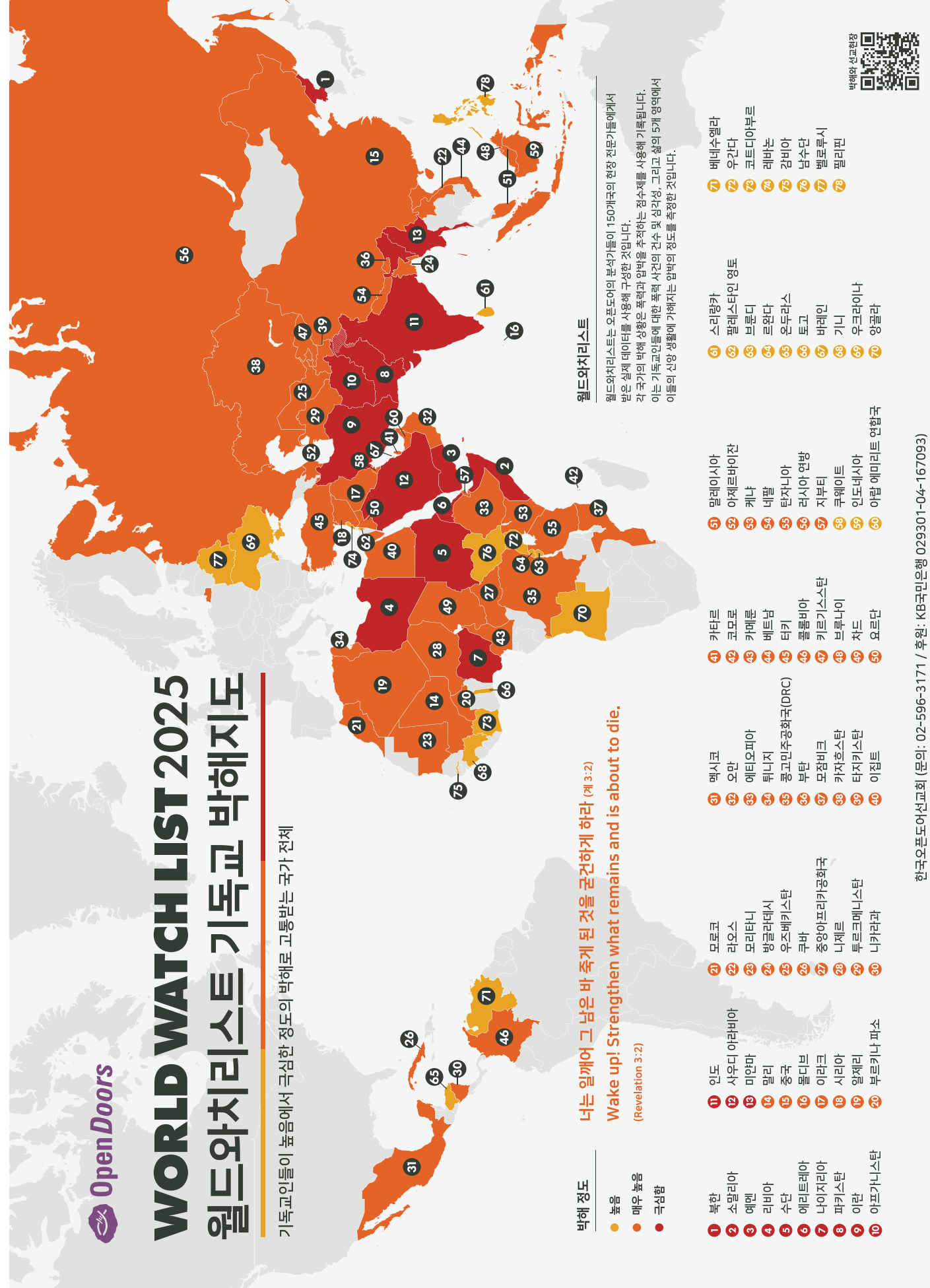
**6**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며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지칭하던 ‘수령’으로 칭하며 자신의 권위를 선대보다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 강화는 결국 이에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 박해 강화로 이어 집니다. 또한 우상화에 집착할수록 그 우상화의 근거가 되는 핵을 포기할 수 없게 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도 심해집니다. 북한이 지도자 우상화가 중단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래에 제 3국에서 탈북 여성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탈북 여성들에 대한 행방을 엄격하게 추적, 관리하는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여러 탈북 여성들이 불합허 수일에 걸쳐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엄중해진 상황 속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복송의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3국 탈북 여성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강제 복송이 하루 속히 중단되어 탈북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탈북 여성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1월 31일





# 2025

##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제                          | 주차 | 날짜     | 강의 주제                  | 강사                 | 형식        |  |
|-----------------------------|----|--------|------------------------|--------------------|-----------|--|
| 북한<br>선교를<br>위한<br>북한<br>이해 | 1  | 4월 7일  |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 정종기(고신총회 북한선교원)    | 온라인       |  |
|                             | 2  | 4월 14일 | 한국교회와 북한선교             | 하충엽(숭실대학교)         |           |  |
|                             | 3  | 4월 21일 | 북한주민의 경제생활과 장마당        | 최설(북한대학원대학교)       |           |  |
|                             | 4  | 4월 28일 |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문제       | 강디모데(엔케이피플)        |           |  |
|                             |    | 5월 5일  | 어린이날 연휴                |                    |           |  |
|                             | 5  | 5월 12일 | 북한의 종교와 교회             | 유관지(북녘교회연구원)       | 온라인       |  |
| 북한<br>선교<br>현장              | 6  | 5월 19일 |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 김바울(북한 지하교회출신 사역자) | 온라인-대면 병행 |  |
|                             | 7  | 5월 26일 |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 성훈경(북방선교방송)        | 온라인       |  |
|                             | 8  | 6월 2일  |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       | 정인수(NKCCC)         |           |  |
|                             | 9  | 6월 9일  | DMZ 기도회                |                    |           |  |
|                             | 10 | 6월 16일 |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 이다니엘 사무총장(IBA)     | 온라인       |  |
|                             | 11 | 6월 23일 | 국내정착 탈북민 선교와 통일목회      |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     |           |  |
|                             | 12 | 6월 30일 |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 현장사역자 1            | 온라인-대면 병행 |  |
|                             | 13 | 7월 7일  | 제삼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 현장사역자 2            |           |  |
|                             | 14 | 7월 14일 |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 현장사역자 3            |           |  |

**일정 및 시간**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진행 형식**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부 강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회비** - 10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이벤트 및 공지사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5. 2. 3 - 3. 31)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